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김수연^{1*}

1. 상지대학교, 조교수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여 태권도 학문과 지도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273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jamovi 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킨다. 또한,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현명하게 실수를 활용하여,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도록 현 시대에 적합한 지도방법 개발과 지도관점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대학 태권도, 자율성 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

I. 서 론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8, Deci & Ryan, 2012)의 관점에서 선수들이 자율성을 지각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과 의견을 허용하고, 선수들의 관점을 인정하며, 기술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선수들의 다양한 특성(예, 심리, 정서 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오고 있다(Choi, 2020; Deci, Guardia, Moller, Scheiner, & Ryan, 2006; Joesaar, Hein, & Hagger, 2012).

자율성은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 및 통제할 때 자기결정

성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Grolnick & Ryan, 1989). 특히, 부모나 코치로부터의 밀착지도를 받는 청소년 선수들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보받고 싶어 하는 대학선수들은 지도자의 지도전략에 따라 선수들의 자발성, 자기관리, 그릇 등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Kim, Kim, 2020; Shin, Huh, 2019; Lee, 2011), 대학 선수들의 긍정적인 욕구를 형성시키기 위해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 할 수 있는 지도전략이 중요하다(Kim, Park, 2009).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hoi(2020)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성 지지는 번아웃과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Nam(2016)은 대학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행동은 선수의 열

* sykim0625@sangji.ac.kr

정과 운동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 코칭행동은 선수의 열정과 운동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은 전반적인 운동수행과정에 걸쳐 선수들이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So, 2015). 특히, Cho & Lee(2016)는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Shin & Huh(2019)의 연구결과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성향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이 수용되고 있는데(Kim, 2010; Shin, Choi & Yeon, 2014; Wuttke & Seifried, 2012),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실수인식(perception of error)’이 주목받고 있다(Kim, 2020; Shin & Huh, 2019; Yeon, 2019; Sideridis, 2005). 이러한 실수인식은 성공과 실패가 극명히 나타나는 스포츠 분야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Seo, Sim, 2020). 그 이유는 실수인식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성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im, Sim, 2020; Sim, Seo, Kim, 2020). 특히,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학습된 수행력을 실제 경기상황에서 발휘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장, 체격, 성향 등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도출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데, 시합 중 연습해 온 전략을 적용하지 못했거나, 득점기회 또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등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Kim & Sim, 2020). 또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 내에 연이은 발차기를 통해 타임을 맞춰 몸통과 얼굴에 정확한 가격을 하여 득점을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하는 발차기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기는 불가능하며, 필연적으로 실수가 발생되고, 그 실수로 인해 역공을 당할 수도, 상대에게 점수를 내어줄 수도 있기에 자신의 실수를 인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크다.

실수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태권도 선수들의 실수인식은 성취목표성향과 인지된 경기력(Kim, 2020), 번아웃 및 탈퇴동기(Kim & Sim, 2020), 마인드셋(Shin & Huh, 2019), 완벽주의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Seo, Sim & Kim, 2020)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실수인식은 선수들의 긍정적인 성과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소시킨다고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수인식은 지도자의 지도전략과 방법에 따라 변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선수들이 실수인식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변화되는 심리적 특성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도자의 지도방법이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1편(Shin, Huh, 201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성 지지가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선수들의 성취와 성공을 위한 개인의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이고(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변화와 개발이 가능한 심리적 요인이다(Lee & Choi, 2010).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체육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Kim & Heo, 2017; Yang, Yeh, Yang, & Mui, 2013). 그 이유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의 수준이 함양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다양한 요소(예, 환경, 심리, 사회적 요소 등)들에 의하여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Pezent, 2011), 즉, 긍정심리자본은 선수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리적 특성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Avey, Reichard, Luthans & Mhatre, 2011). Van den Heuvel, Schalk, & Van Assen(2015)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실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심리를 형성시킨다고 보고하였고, Orr & Carrasco(2011)와 Amini & Mortazavi(2012)는 실수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선수들의 긍정적인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을 촉진 시킬 선행변수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여 태권도 학문과 지도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8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의 내용이 결여되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7부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273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79명(65.6%), 여성 94명(34.4%)로 나타났고, 1학년 88명(32.2%), 2학년 63명(23.1%), 3학년 68명(24.9%), 4학년 54명(19.8%)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개인적 특성 4문항, 자율성지지 6문항, 실수인식 13문항, 긍정심리자본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응답반응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성지지

Deci(2001)가 개발한 자율성지지 검사지를 Kim & Park(2009)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실수인식

Rybowiak, Garst, Frese & Batinic(1999)이 개발한 실수인식 척도(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를 Shin et al.(2014)이 국내 여건에 맞게 변안하고 Seo & Sim(2020)이 태권도 선수 대상으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실수로부터 학습 4문항, 실수에 대한 도전 4문항, 실수에 대한 고찰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긍정심리자본

Lim(2014)이 개발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K-PPC)

를 Yang, Kim & Kang(2020)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ML) 추정 방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TLI(>.9), CFI(>.9), RMSEA(<.01)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복적재치가 나타난 자율성지지 3번 문항과 실수인식의 8번 문항, 긍정심리자본의 6번, 7번, 13번 문항을 제거한 이후 적합도 지수는 $\chi^2=667.758$, $df=436$, TLI=.923, CFI=.933, RMSEA=.054로 모든 항목이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율성 지지 .930, 실수인식 .876 이상, 긍정심리자본 .751 이상으로 나타났다.

4. 조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학 태권도 팀에 소속된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각 팀의 지도자에게 사전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이때, 코로나 19 상황 인만큼 감염예방을 위해 좌석 간 거리두기와 발열확인 및 소독을 실시하였고,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를 동의한 태권도 선수 280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하여 설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후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jamoni 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i>B</i>	β	<i>S.E.</i>	<i>t</i>	α
autonomy support	→ 1	1.000	.819	-	-	.930
	→ 2	1.109	.893	.075	14.701***	
	→ 4	1.009	.847	.074	13.569***	
	→ 5	1.016	.842	.075	13.465***	
	→ 6	1.040	.859	.075	13.862***	
perception of errors	→ 1	1.000	.799	-	-	.892
	learning from mistakes → 2	1.088	.874	.083	13.142***	
	→ 3	1.083	.849	.085	12.688***	
	→ 4	1.025	.773	.091	11.263***	
	challenge to mistakes → 5	1.000	.734	-	-	.896
	→ 6	1.173	.732	.132	8.860***	
	→ 7	1.152	.801	.122	9.477***	
	→ 9	1.000	.763	-	-	.876
	considering mistakes → 10	1.091	.750	.109	10.033***	
	→ 11	1.088	.830	.097	11.159***	
	→ 12	1.000	.738	.101	9.857***	
	→ 13	1.039	.747	.104	9.98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1	1.000	.807	-	-	.878
	→ 2	.961	.769	.086	11.129***	
	self-efficacy → 3	.900	.773	.080	11.199***	
	→ 4	.958	.743	.090	10.659***	
	→ 5	.977	.755	.090	10.871***	
	optimism → 8	1.000	.675	-	-	.751
	→ 9	1.076	.749	.132	8.125***	
	→ 10	1.101	.744	.136	8.094***	
	→ 11	1.000	.760	-	-	.850
	hope → 12	.991	.803	.091	10.942***	
	→ 14	.958	.800	.088	10.910***	
	→ 15	.962	.725	.098	9.770***	
	resilience → 16	1.000	.649	-	-	.816
	→ 17	1.422	.803	.165	8.612***	
	→ 18	1.424	.877	.163	8.728***	

$$\chi^2=667.758, df=436, TLI=.923, CFI=.933, RMSEA=.054$$

*** $p < .001$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자율성 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수인식의 실수고

찰과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그 외 모든 요인 간 상관관계수가 .8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상관관계수는 두 변인이 공통으로 변하는 방향과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므로 상관관계수는 그것이 얻어지고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상대적이 된다(Ye, 1999). 또한, 상관관계수는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관계수로 상관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Table 2. Correlation

	1	2	3	4	5	6	7	8
autonomy support	1							
learning from mistakes	.324**	1						
challenge to mistakes	.292**	.605**	1					
considering mistakes	.258**	.272**	.370**	1				
self-efficacy	.399**	.278**	.246**	.209**	1			
optimism	.266**	.392**	.417**	.301**	.474**	1		
hope	.457**	.451**	.375**	.361**	.673**	.582**	1	
resilience	.260**	.366**	.260**	.039	.339**	.381**	.411**	1

** $p < .01$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상관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등의 언어적 표시로 자료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Lee, 2004).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chi^2=86.517$, $df=51$, $TLI=.960$, $CFI=.969$, $RMSEA=.062$ 로 모든 적합성 지수가 기준치(Kline, 2015)를 만족하여 측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율성 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4$, $t=4.709$, $p<.001$).

Table 3. Result of SEM

Latent variable	B	β	S.E.	t	Accept
A $\rightarrow$ B	.354	.424	.075	4.709***	select
A $\rightarrow$ C	.212	.295	.059	3.581***	select
B $\rightarrow$ C	.429	.498	.087	4.913***	select

 $\chi^2=86.517$, $df=51$, $TLI=.960$, $CFI=.969$, $RMSEA=.062$ *** $p < .001$

A=autonomy support, B=perception of errors,

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5$, $t=3.581$, $p<.001$).

셋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실수인식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98$, $t=4.91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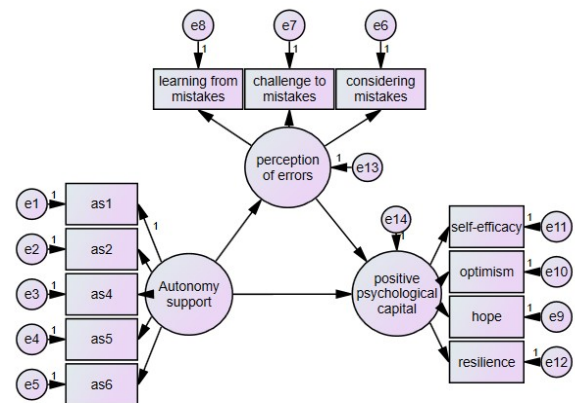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행동과 실수인식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Shin & Huh(2019)은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태권도 선수들은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도자

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지도방법이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1편(Shin & Huh, 2019)에 불과하여 다양하게 직접적인 비교나 대조는 어렵지만, 유사한 맥락으로 Gillet, Vallerand, Amoura & Baldes(2010)의 연구에서 코치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운동수행의 긍정적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안타깝지만 그동안은 실수를 가급적 피해야 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식되어 왔다(Yeon, 2014). 실수가 지니고 있는 특성 자체를 살펴보면, 실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Brodbeck, Zapf, Prümper & Frese, 1993),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Frese & Zapf, 199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가 발생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로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재학습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줌으로써 실수가 발생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에 따라 선수들은 실수가 발생한 원인, 자신의 심정, 스스로 생각하는 대처방안 등을 지도자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으며, 지도자는 스스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실수를 통해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현명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발생한 실수를 나무라기보다는 실수가 발생된 후 선수의 감정을 헤아리고, 스스로 해결해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naver) 영어사전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선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지도자로서의 권한이나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것이 성적 부진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성 지지는 지도자-선수 관계에서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 지도자와 선수 모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도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해주고 유용한 지도법으로 활용 및 적용할 수 활발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성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Kong & Kim, 2017; Baek, 2019; Choi & Huh, 2016), 희망(Park, 2018), 낙관주의(Lee & Lee, 2011), 회복탄력성(Ko, 201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 태권도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직접 생각하고 고찰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선수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전망에 대한 낙관,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학생이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하여 미숙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의 결과보다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지도자가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려는 태도는 선수가 자발적, 능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소한 것에도 간섭과 통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환경인데(Lim, Yoo, Jung, Kim, Yang, Yang & Jeon, 2012),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율성을 충족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Kong & Kim, 2017). 또한, Kim(2016)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이뤄지는 주입식 교육은 학습에 대한 동기와 문제해결력의 발달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 태권도 선수들은 자신이 선수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성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여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더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성인이 된 대학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선수 스스로 과정목표와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능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도성과 주체성을 지닌 대학 태권도 선수들은 위기와 고난이 마주했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포기하려는 습성보다는 스스로 극복해 내려는 의지가 상승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믿음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 목표달성 가능에 대한 희망이 증대되어 복합적인 심리요인들이 강화되는 긍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실수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 & Sim(2020)은 고등학교 태

권도 선수들이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실수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태도는 번아웃을 예방하고, 발생된 실수나 실패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선수들이 탈퇴동기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o, Sim & Kim(2020)은 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태권도 선수들이 훈련과 시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경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 외 Shin, Kim, Choi, Park & Kim(2018)은 실수에 대한 인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Han(2017)은 실수인식-두려움이 회복탄력성과 낙관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즉,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실수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되는 계기로 전환하고, 이미 발생한 실수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정보로 활용하는 긍정인식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된 복합적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이 증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후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2010; Ellis, Carrette, Anseel, & Lievens, 2014; Frese & Keith, 2015; Metcalfe, 2017). 즉, 실수에 대한 인식은 실수가 발생한 현재의 시점에서 올바른 대처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중요한 시합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상대에게 득점을 내어주거나 혹은 결정적인 득점을 얻어내지 못해 경기의 승과 패로 직결되어 실수로 인한 결과가 극명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복합적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발생한 실수에 대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능동적인 대처, 실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는 믿음, 실수 후 다시 도전해낼 수 있는 용기, 극복 후 성장해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이면서 동시에 미래 수행의 증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실수를 활용하고,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도록 각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를 학습과 도전, 고찰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고, 선수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전망에 대한 낙관,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수를 고찰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을 증대시키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해서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현명하게 실수를 활용하여,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도록 현 시대에 적합한 지도방법 개발과 지도관점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초, 중, 고)이나 종목별(개인, 단체, 투기 등) 또는 태권도 기술체계별(품새, 시범)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정된 선행연구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론적 근거를 보강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실수인식의 하위요인인 실수고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하위요인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mabile, T. M., & Pratt, M. G. (2016). The dynamic componential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Making progress, making meaning.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6, 157-183.
- Amini, A., & Mortazavi, S. (2012).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mistake management culture as a resource for learning in organization. *Journal of Human Sciences*, 9(2), 339-353.
- Amorose, A. J., & Anderson-Butcher, D. (2007). Autonomy-supportive coaching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654-670.
- Avey, J. B., Reichard, R. J., Luthans, F., & Mhatre, K. H. (2011).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attitudes, behaviors, and perform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2(2), 127-152.
- Baek, H. K. (2019). The Effects of Parents and Coaches' Autonomy Support on Athletes' Stress Coping: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21(4), 139-156.
- Brodbeck, F. C., Zapf, D., Prümper, J., & Frese, M. (1993). Error handling in office work with computers: A field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4), 303-317.
- Cho, Y. G. & Lee, B. M. (2016). Basic Psychological Needs for Autonomy, Support the Leaders of the Ice Sheet Schoolgirl Athletes, the Impact On Sentimen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4, 591-601.
- Choi, H. H. & Huh, J. Y. (2016). The Mediation Effects for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of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Collective Efficacy in Pro Baseball Player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7(4), 13-30.
- Choi, Y. H.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Burn-out, and Exercise adherence of University Taekwondo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9(2), 307-318.
- Deci, E. L. (2001). *The sport climate questionnaire(SCQ)*. Retrieved May 20, 2008 from http://www.psych.rochester.edu/SDT/measures/auton_sport.html.
- Deci, E. L., & Ryan, R. M. (2012).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within embedded social contexts: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R. M. Ryan (Ed.),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The Oxford handbook of human motivation* (p. 85-107). Oxford University Press.
- Deci, E. L.,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1), 14-23.
- Ellis, S., Carrette, B., Anseel, F., & Lievens, F. (2014). Systematic reflection: Implications for learning from failures and success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1), 67-72.
- Frese, M., & Keith, N. (2015). Action errors, error management, and learning in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 661-687.
- Frese, M., & Zapf, D. (1994). Action as the core of work psychology: A German approach.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4(2), 271-340.
- Gillet, N., Vallerand, R. J., Amoura, S., & Baldes, B. (2010). Influence of coaches' autonomy support on athletes' motivation and sport performance: A test of the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1(2), 155-161.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Autonomy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77-1077.
- Han, G. M. (2017). *Hockey Player's Resilience and Strategies to Recover Initial Mistak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Jösaar, H., Hein, V., & Hagger, M. S. (2012). Youth athletes' perception of autonomy support from the coach, peer motivational climate, and intrinsic motivation in the sport setting: one year effects.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13(3), 257-262.
- Kim, E. J. & Heo, J. H. (2017). Development of a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for Athle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4), 1125-1146.
- Kim, J. B. (2010). Educational Implications of Error-Driven Learning.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24(4), 895-913.
- Kim, K. H. & Park, J. G. (2009). Examining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Basic Needs, and Motivational orientations among Collegiate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0(3), 33-48.
- Kim, M. L., & Kim, B. T.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Athletes' Self-Management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Mental Power of TaekwonDo Competitors.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2(1), 147-157.
- Kim, S. Y. & Sim, Y. K. (2020).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rrors, Burnout and Withdrawal Motivation

- in High School Taekwondo Athlete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1(1), 81-100.
- Kim, S. Y. (2020).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Perception of Errors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Middle School Taekwondo Player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1(3), 59-78.
- Kim, Y. M. (2016). *Structural Analysis of Autonomy support, Competence, Achievement goal, and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Ko, J.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Athletes' stress, Ego-Resilience and Burnout in Coach's Autonomy Support Contex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Kong, S. B. & Kim, B. K.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Players' Group Efficacy and Exercise Adhere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5(3), 807-816.
- Lee, D. O. (2004). *Analysis using physical*, Seoul: Taekwon Cultural History.
- Lee, D. S. & Choi, Y. D (2010).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ganizations. *korean management review*, 39(1), 1-28.
- Lee, E. H. (2011). The Impact of Insecure Attachment and Ego Identity on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401-425.
- Lee, J. S. & Lee, J. H. (2011).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 Autonomy, Optimism, Teaching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 28(1), 66-90.
- Lim, T. H.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K-PPC).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6(3), 157-166.
- Lim, Y. S., Yoo, J. M., Jung, K. E., Kim, Y. N., Yang, D. G., Yang, S. K. & Jeon, A. Y. (2011).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ing o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Juvenile School*. Seoul: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motion Agency.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pp. 541-572.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Investing and develop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1(2), pp. 9-24.
- Metcalfe, J. (2017). Learning from erro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8, 465-489.
- Nam, K. W. & Kim, J. S. (2016). The Relationship among Autonomy Support, Controlling Coach Behaviors, Passion and Sport Behaviors of University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6, 373-386.
- Orr, J. M., & Carrasco, M. (2011). The role of the error positivity in the conscious perception of errors. *Journal of Neuroscience*, 31(16), 5891-5892.
- Park, J. R. (2018). *The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 Pezent, G. D. (2011). *Exploring the role of positive psychology constructs as protective factors against the impact of negative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Texas A&M University.
- Rybowiak, V., Garst, H., Frese, M., & Batinic, B. (1999). 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 Reliability, validity, and different language equival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0(4), 527-547.
- Seo, E. C. & Sim, Y. K. (2020). Item Goodness Verification of Real Perception Scale Using Rasch Model: For Taekwondo Athletes. *Journal of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1(2), 265-279.
- Seo, E. C., Sim, Y. K. & Kim, S. Y. (2020).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and Sports coping skill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Journal of Martial Arts*, 14(3), 193-209.
- Shin, J. H, Choi, H. S. & Yeon, E. M. (2014). The Effect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s on Students' Perception of Error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28(1), 225-249.
- Shin, J. H. & Huh, J. Y. (2019).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Coaching Style, Growth mindset, Orientation of Error, and Grit in Collegiate Athletes: Mediating Effect of Phantom Model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0(4), pp. 1-16.
- Shin, J. H., Choi, H. S., & Yeon, E. M. (2014). The Effect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s on Students' Perception of Err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1), 225-249.
- Shin, J. H., Kim, M. S., Choi, B. H., Park, J. S. & Kim, J. B. (2018). The Effects of Creative Self-Efficacy on Perception of Errors and Creative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Challenge Goal.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8(1), 1-2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deridis, G. D. (2005).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

- ment, and depression: Evidence in favor of a revised goal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pp. 366-376.
- So, Y. H. (2015).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Vitality, Passion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High School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2, 575-586.
- Van den Heuvel, S., Schalk, R., & van Assen, M. A. (2015). Does a well-informed employee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chang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trust, and perceived need for change.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51(3), 401-422.
- Wuttke, E., & Seifried, J. (Eds.). (2011). Learning from errors at school and at work, Verlag Barbara Budrich.
- Yang, D. S., Kim, K. D. & Kang, H. W. (2020). Th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ntal Toughness and Burnout on University Taekwondo Kyorugi Players. *Journal of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1(2), 187-202.
- Yang, M. H., Yeh, C. T., Yang, H. W., & Mui, W. C. (2013). The impa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capital on sport burnout of junior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students. *Life Science Journal*, 10(3), 1946-1956.
- Ye, J. I. (1999). *Physical education statistics and research design*, Seoul: Taekwon Cultural History.
- Yeon, E. M. (2019). Relation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Feedback, and Social Relationships to Students' Error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 336-345.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Perception of Error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im, Su-Yeon^{1*}

1. Sangji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on the perception of error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thod To achieve this, a sample of 273 people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of the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from Seoul and Gyeonggi was selected as a population. jamovi 1.1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MOS 23.0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errors. Second, the autonom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ird, the perception of errors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nclusion In conclusion, university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errors and strengthens thei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so, since perception of errors has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university taekwondo coach's support autonomy to strengthe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thletes, and use the mistakes wisely to interpret them as opportunities for growth.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the leadership perspective will be needed.

Keywords university taekwondo, autonomy support, perception of erro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논문투고일: 2021.04.29.

논문심사일: 2021.06.20.

심사완료일: 2021.06.23.

논문발간일: 2021.06.30.

